



2026. 6. 25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인터넷은행 가계대출 목표 미준수...당국, 신용대출 '빚투' 주시

연합뉴스 <https://zrr.kr/VeiyMr>

인행 3사가 올해 5월까지 설정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일부 벗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은 특히 신용대출 증가세에 주목하며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
현재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 한도 축소, 신규 취급 제한 등을 통해 대응

가계대출 빚장 아직... 여유로운 지방은행

머니투데이 <https://zrr.kr/TtlEez>

대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일제히 가계대출을 옥죄는 가운데 지방은행들은 직접적인 방식의 가계대출 축소정책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 모습
지방 거점은행들은 연초 금융당국으로부터 5대 은행 대비 비교적 높은 평균 4%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부여받았기 때문

추 '금융권 공공성' 강조에...은행권 연이어 5~6% 중저신용자 대출 출시

이데일리 <https://zrr.kr/ruuj2v>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기관 공공성 강조 이후 금융위원회가 이달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출범하면서, 5대 은행이 연 5~6%대 중저신용자 대출을 내놓는 등 포용금융 확대
은행들은 중저신용자의 대출 부담을 낮추기에 중점을 두고,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과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갈아타기 대출 등도 출시

은행 부실여신,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비중 60% 육박

비즈워치 <https://zrr.kr/AqNw6C>

국내은행 부실여신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했으며,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 서비스 부문의 회복 지연 등으로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기업 수도 증가
은행이 매각한 부실 채권 가운데 개인사업자 등 개인차주 비중도 늘었는데, 이는 내수부진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

역대급 신용용자 조이기 나선 금감원...증권사 소집해 "기계적 리스크관리서 탈피를"

매일경제 <https://zrr.kr/sPuKyv>

신용용자 잔고가 38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리스크관리 임원들을 불러 '빚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손실흡수 능력과 유동성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할 방침

증권사들 단기채 공격적 발행... 일반기업 자금 조달길 막히나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3tlxPn>

증권사들이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을 공격적으로 늘린 데 이어 공모 회사채 발행까지 확대하면서 크레딧 시장 전반의 수급 부담이 확대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다른 크레딧 채권에 대한 투자 여력을 흡수해 스프레드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

빚투에 보험계약대출도 급증 ... 금융당국 "보험사 긴급 소집"

매일경제 <https://zrr.kr/orEJXR>

지난 4월 당국의 관리 강화 주문으로 보험사들이 일제히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95%에서 85%로 조정했으나 증시 활황이 이어지자 지난달 다시 급증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상 관리를 주문할 방침이나, 지난 4월 대출 한도 조정 과정에서 아예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추가 한도 조정에 난색

금리 오르면 자본확충 수요 감소...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 상반기 1조 그쳐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lxyKqj>

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발행한 자본성증권 규모는 총 1조513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250억원) 대비 약 78% 감소
시장금리가 높으면 자본성증권의 금리 매력도가 떨어져 투자자 관심도 줄어드는 편이며, 보험사들의 키스 비율이 일부 개선되므로 회사 측이 발행에 나설 유인도 축소

SBI홀딩스, 일본 최초 신탁형 엔화스테이블코인 발행한다

이데일리 <https://zrr.kr/0infBE>

일본의 대형 금융그룹인 SBI홀딩스가 일본 최초의 신탁형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행할 계획
그중 내 은행과 증권,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사업을 연계해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기관투자가 금융 인프라로 키우겠다는 방향

은행·카드사·정치권까지 전방위 접촉...솔라나, 韓 가상자산 시장 선점 '정조준'

뉴스1 <https://zrr.kr/oMIMs4>

블록체인 프로젝트 솔라나(Solana)가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토스뱅크와 광주은행, KG파이낸셜 등 금융권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회 세미나·정책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향후 제도권 편입 환경에 대비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